

지역 매 아리

김제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현)는 4일 화재 위험이 높고 각종 사건·사고가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5대 전략, 13개 과제를 마련했으며,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강화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대책들을 추진한다.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전기장판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에 과전류·전압 차단기가 설치된 제품 사용권장 운동 전개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합동 화재취약대상 안전진단 실시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예고 없는 불시 피난대피 훈련 △대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단속과 김제시 특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 시 피난계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피난안전 킷도그램을 제작·보급해 '불나면 대피 먼저'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성탄절·연말연시·설·대보름 등의 취약시기에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구조·구급 서비스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난 현장 대응 태세확립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도로명주소 체험형 홍보

김제시는 지난 1일에서 2일까지 2일간 김제 시민운동장 잔디공연장 일원에서 개최된 평생학습한마당에서 전북도와 공동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홍보 부스 운영은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해 안내 리플릿과 홍보 물품 등을 배부하고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부여 원리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건물과 거리의 특색을 반영해 자유롭게 제작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직접 만드는 체험 등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 방법으로 진행되어 평생학습한마당을 찾아온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부모님 손을 잡고 놀러 온 아이들은 직접 건물번호판을 만들며 도로명주소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며, 체험을 마치고 난 후 선물을 받아 가는 즐거움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체험에 참여한 김산동의 한 학부모님은 아이들이 직접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만들며 자신의 집 주소를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도와 김제시, 김제자유무역지대관리원은 4일 시청 회의실에서 ㈜그린바이오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외투기업 김제에 60억원 투자

그린바이오팜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기업 2021년까지 350억원 투자 계획

전북도와 김제시, 김제자유무역지대관리원은 4일 시청 회의실에서 ㈜그린바이오팜(대표 오유진)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준배 시장, 이법천 김제자유무역지대관리원장,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 운주현 시장, 황영석 도의원, 고미정 경제복지위원장과 기업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협약을 축하했다.

위생용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그린바이오팜은 중국 자본이 투자되는 외투기업으로 김제자유무역지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즉시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바이오팜은 우선 부지면적 1만6498㎡ 규모에 60억원을 투자해 30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2021년까지 350억원을 투자하여 211명까지 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 수출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수출증대에도 기

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유진 ㈜그린바이오팜 대표이사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이미지와 잘 어울리고 교통인프라가 좋은 지역으로 김제를 선택했다"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배 시장은 "이번 투자로 김제자유무역지대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성일 군수 "완주 랜드마크 제안, 타당성 검토 필요"

확대 간부회의서 언급, "부서별 취약시설 살펴봐야"

박성일 완주군수는 4일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포럼에서 '완주 랜드마크' 조성을 검토해 볼만 하다는 제안이 나온 이후 언론 등 각계에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부서에서 랜드마크 조성 등의 타당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전문가의 신(新)완주구상 제안 이후 지역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한 바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군수가 공식 석상에서 랜드마크 조성 제안과 관련한 타당성 등을 언급한 것은 지난날 11일 열린 정책포럼에서 학계의 제안이 나온 지 20여 일만의 일이다.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당시 포럼에서 '신완주 구상, 그리고 새로운 상징' 주제발표를 통해 "완주의 역사성과 차별성을 담아내고 10만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공간이나 상징물 조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완주를 상징할 '랜드마크 타워'를 조성하고 문화 휴양시설과 관광·레저 시설을 연계할 경우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군수는 또 지난주 안수사 케이불카 사고와 관련,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한번 사고가 나면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며 "부서별로 안전 취약지대가 있는지 각별히 살펴

봐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박 군수는 "비관리대상 시설에서 사고가 났지만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허가시설이나 비허가 시설 등을 막론하고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야영장 등은 물론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 축대옹벽 등 전 부서별로 소관분야 시설의 안전점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군수는 이어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정치권·전북도 등과 입체적인 공조를 통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아울러 이날에는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이 있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지평선쌀, 전국 최고 쌀 선정

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 출품 '농식품부장관상'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28회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대회에서 곡류부문에 출품한 지평선쌀이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출품한 으뜸농산물 품평회와 직거래장터 및 각종 우수농산물 홍보행사 등이 진행됐다.

특히 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출품한 농산물을 부문별(곡류, 과일류, 채소류, 화훼류, 특작류 등)로 분류해 품질을 평가한 후 우수작을 선정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에서는 '곡류부문'에 지평선쌀을



출품해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은 "그 동안 지역농업을 선도해 온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우수한 지평선쌀 생산을 위해 과학 영농을 실천한 결과, 전국 최고의 으뜸농산물로 인정 받는 쾌거를 이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사무관으로 승진한 완주군 공무원 4명이 1111사회소통기금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완주군 사무관 승진자들 장학금 기탁

1111사회소통기금에 200만원 전달

완주군의 사무관 승진자들이 장학금을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4일 완주군은 5급승진리더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사무관으로 승진한 완주군 공무원 4명이 1111사회소통기금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5급 승진자는 정정균 농업기술과장, 윤당호 전문위원, 강명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전진업 고산면장

이다. 이들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기탁 동기를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간부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장학금 기탁이 동료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런 고마운 마음이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